

“영어 이름 부르고, 유니폼 벗고”

하나금융, 직급 대신 닉네임 사용
“수평적 기업 문화 구축 첫 출발”
4대 시중은행 복장자율 도입 눈길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금융권에 호칭 개혁과 복장 자율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자율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우리은행 본점 직원들. 사진제공 | 우리은행

보수적 색채가 강한 금융권 조직문화에 호칭 개혁과 복장 자율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오픈뱅킹 등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문화 혁신 없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은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한 호칭 개혁을 실시한다. 최근 은행, 카드, 증권사 등 전 계열사에 영어 이름을 그룹 포털에 등록 후 사용하라고 공지했다. 일상에서 임직원 간 직급 대신 영어 닉네임 사용을 권고한 것이다. 하나금융의 회장도 각 계열사 대표들도 영어 닉네임을 정했다. 김정대 하나금융 회장은

이니셜인 JT,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글로컬(Glocal),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은 윌리엄(William)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업권에서 영어이름을 부르거나 호칭 대신 ‘님’을 붙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4대 금융그룹에서는 하나금융이 처

음이다. 하나금융 측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수평적 기업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 첫 출발을 영어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의 복장 자율화 도입도 눈에 띈다.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6월 우리은행, 11월 하나은행이 영업점 직원의 유니폼을 없애고 복장 자율화를 시행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단순히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부터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복장 자율화를 계기로 직원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더욱 세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점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날씨와 생활

17일(화)

서울	20/60	인천	30/60	수원	30/60
☀️	11 19	☀️	12 18	☀️	9 19
춘천	30/60	강릉	30/30	청주	30/60
☀️	6 18	☁️	12 21	☀️	10 20
대전	30/60	전주	30/60	광주	60/30
☀️	10 20	☀️	10 21	☀️	12 20
대구	30/30	울산	30/30	부산	30/60
☁️	8 20	☁️	12 20	☀️	14 21
창원	30/6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10 19	☁️	17 24	☀️	최저 최고기온°C

☀️ 해돋이 07:14 해질 17:20 🌙 달돋음 09:21 달질 19:07

산 날씨

북한산	☀️	9/20	내장산	☀️	9/21
설악산	☁️	11/20	무등산	☀️	9/20
오대산	☀️	6/18	주왕산	☁️	7/20
속리산	☀️	7/19	지리산	☀️	10/19
계룡산	☀️	7/20	한라산	☀️	17/22

바다 날씨

인천중도	☀️	12/18	안면도 꽃지	☀️	8/20
제주도	☀️	10/21	변산반도	☀️	9/21
경포대	☁️	12/21	거문도	☀️	11/19
속초	☁️	11/18	해운대	☀️	14/21
대전	☀️	9/20	제주도	☀️	17/24

미세먼지

서울	44	보통	대전	43	보통
부산	23	좋음	경기	50	보통
대구	43	보통	강원	50	보통
인천	33	보통	전북	41	보통
광주	27	좋음	제주	14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56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충선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소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양홍철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롯데호텔, 글로벌 전 계열 호텔 ‘프리미엄 딜’ 진행

23일 오후8시부터 100시간 동안 실시



일 공개한다. 호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전용이다.

롯데호텔은 국내외의 모든 호텔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모션 ‘프리미엄 딜’을 진행한다. 23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100시간에 걸쳐 실시하며 시그니엘, 롯데호텔, 롯데시티호텔, L7호텔 등 국내 전 체인과 미국,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일본의 9개 롯데 호텔이 참여한다.

투숙 기간은 2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다. 체크인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롯데호텔 리워드’ 회원 한정 프로모션이며 가격은 프로모션 당

한편 롯데호텔은 23일 오후 8시부터 인스타그램 채널(@lottehotels)을 통해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라방’(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을 실시한다. 김재범 기자

관광공사, ‘제페토’ 활용 가상체험 구현

한국관광공사는 모바일 기반의 3D 아바타 앱 제페토(ZEPETO)를 활용한 한국여행 가상 체험공간을 최근 오픈했다. 제페토는 자신의 개성을 담은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서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앱으로 세계 1억 9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와 함께 한강공원에 한국의 가상여행지를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가상 한강공원에서 관광투어와 각종 체험을 하거나 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해 자신의 SNS에 공유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김재범 기자

신한카드-홀플러스, 데이터 사업 MOU

신한카드와 홀플러스가 데이터 결합, 공동 신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카드 결제 데이터와 홀플러스 판매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합 데이터를 상품화해 금융데이터거래소와 한국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제조사, 광고사, 공공기관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결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기구독 등 큐레이션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별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동 마케팅 사업도 추진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올해 글로벌 여행 트렌드는 “안전 중심 소도시 여행”

익스피디아, 빅데이터+설문 분석
인구밀도 낮은 중소도시 선호도 ↑

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새로운 국내여행지를 찾는 움직임이 늘었다. 국내에서는 충청 지역의 숙박예약량이 지난해 31위에서 8위로 크게 상승했다. 전라 지역(13위→6위), 경상 지역(부산 제외, 12위→5위)의 순위도 많이 올라갔다.



도시 기준으로는 대전, 평창, 양양, 거제, 목포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를 찾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프랑스 여행객은 몽펠리에, 니스 등 남부 중소도시를, 영국 여행객은 비교적 한적한 지역인 데본, 컴브리아 등을 즐겨 찾았다.

한편 익스피디아는 내년도 여행 트렌드로 국내여행의 재발견, 안전 중심 여행, 취사나 환불이 유연한 여행, 미리 꿈꿔보는 여행, 트래블 버블 등을 꼽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7일(화) 음력: 10월 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힘찬 하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명.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신기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노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맑음.
간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이 풀리는 대로 행통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은 쥐가 쥐를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육해상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인생행로는 목적지를 향한 긴 여정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재삼일이다. 재삼 일에는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의 실력자를 움직여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 내가 당하기도 한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 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토끼가 쥐를 만나면 자료형으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 쥐는 찬 물이요 토끼는 바람이니 북풍, 냉풍에 파도가 일게 되니 풍파이다.	웅덩이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용이 쥐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항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마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뱀이다. 뱀파는 헬기왕성해 뭍기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한데 쥐는 브레이크를 거는 형국이다. 정신적 활동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갈등.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싸늘.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상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구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우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가시밭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말날로 재삼일이다. 말은 쥐를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원숭이때를 만나 자문을 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쥐 날이다. 쥐는 도화로서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운이 강한 반면, 양은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 않게 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립한 운으로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원숭이때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한데 오늘 쥐 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색하게 된다.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쥐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한 쥐는 밤을 의미한다.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되기도 한다. 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하고 일어나는 기운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날이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개띠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모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승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그러나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피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기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팽팽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라. 오늘은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이나 중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